월요광장

# 통유(通儒) 고봉 기대승 선생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음력 9월 초정(初丁)은 바로 월봉서원(月峯書院) 추향(秋享)의 날이었다. 월봉서원은 조선왕조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퇴계·율곡과 같은 수준의 성리학자 중 한 분인 고봉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사당이 있어, 많은 선비들이 모여 선생의 학덕(學德)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고봉은 바로 호남의 가장 큰 고을인 광주의 상징적인 학자이다. 서원으로부터 제관(祭官)의 망첩을 받고 평생에 숭모하던 고봉 선생의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리며 찾았던 그날은 마침 초가을의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월봉서원은 광주시 광산구 광곡길에 위치한 서원인데,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지닌 곳이다. 고봉이 1572년 46세라는 참으로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그의 높고 깊은 학문을 한없이 우러르던 동료나 후학들의 정성으로, 6년 뒤인 1578년에 서원이 세워졌다. 지금으로부터 440년 전의 일이다. 나라에서 서원 철폐령을 내렸던 1868년 훼철을 당했으나, 유림 등의 정성으로 1938년 서원이 다시 복설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와 시설 확충을 통해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 이제는 국내 굴지의 서원으로 덩실하게 서 있다.

고봉은 애초에는 전라도 성리학자들로 선배 되는 일재 이항, 하서 김인후 등과 학문을 토론하고 질문하며 학문을 익혔다. 그러나 벼슬하던 시기에 영남의 퇴계 이황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닦았다. 더구나 퇴계와 고봉은 8년에 걸친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길고 긴 토론과 질의를 겸한 서간을 주고받아, 세상에서 유명한 '퇴계고봉왕복서'(退溪高峯往復書)를 탄생시켰다.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 아닌 퇴고왕복서, 학술사에서 찾기 힘든 학술 논쟁을 역사에 남겨 준 위대한 학자가 바로 고봉이었다.

때는 1569년 선조 2년 3월 4일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 이황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기 직전, 선조 임금을 야대청(夜對廳)에서 뵈었다. 선조는 퇴계에게 물었다. "학문하는 사람 중에 나에게 알려 주고 싶은 학자는 없는가? 기탄없이 말해 주오." 그러자 퇴계는 그 일(나라를 위해서 학자를 추천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고 했다. 송나라의 정자(程子) 같은 현인도 그렇게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거느렸으면서도 추천할 사람을 고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자신도 추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계는 말했다. "그러나 기대승의 사람됨은 옛 글을 많이 보았고 성리학에 있어서도 소견이 가장 뛰어나니, 그는 바로 '통유'(通儒:학문에 통달한 유학자)입니다.(其中奇大升之爲人 多見文字 於理學所見最爲超詣 乃通儒也)"라고 답했다고 한다. 바로 고봉과 선조와의 대화를 기록한 '논사록'(論思錄)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퇴계는 또 고봉의 부족한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고봉에게는 '수렴지공'(收斂之工) 즉 밖으로 발표하는 공부보다는 안으로 숨기고 감추는 학문의 공부가 약간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그때 고봉의 나이는 겨우 43세, 외향적인 것에 비교하여 내향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으니, 성격 탓도 있겠지만 연령 탓도 있었으리라. 그런 뛰어난 학자가 겨우 퇴계가 돌아가신 후 3년 만에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호남 학계의 불운이자 조선 학계의 불행이었다. 고봉은 32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검상(檢詳)·사인(舍人)등 찬란한 벼슬을 거쳤고, 부제학·예문관직제학·성균관 대사성·대사간·공조 참의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그는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며 곧은 말 잘하기로 세상에서 유명했으니, 조광조·이언적 등 억울하게 사화(士禍)를 당한 옛 어진 이들을 복권하고 증직하자는 주장을 펴서 모두 실현시키기도 하였다.

고봉은 벼슬살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으나, 역시 그는 학자였다. 퇴계와의 학문 논쟁으로 조선 성리학의 새로운 틀을 짜 낼 수 있었고, 후배인 율곡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리 이론을 주장한 점도 크게 주목받을 일이었다. 그는 저서 '고봉집'(高峯集)과 '논사록'(論思錄)등 학문 수준도 뛰어났지만, 순수 성리학자들과 다르게 이재양민론(理財養民論)·숭예론(崇禮論)·언로통색론(言路通塞論)등 실용학인 경세론(經世論)에도 밝았다. 그 때문에 뒷날 기호학문이 이론에만 치우친 영남학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계기를 열기도 했었다. 모든 분야에 통달했던 대유 고봉 기대승, 우리 호남의 자랑스러운 학자요 조선의 성리학자였음을 잊지 말자.

꿈꾸는 2040

#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30년 활동에 경의를 보내며

임 용 철
위민연구원 이사·다큐 감독

1년 전인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전범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 원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난 일을 뒤집었다며 수출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노 재팬'(NO JAPAN)을 선언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면서 일본과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단초가 되었던 작년 대법원 판결에 광주가 기억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나고야 소송 지원회'일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투쟁, 장장 20여 년에 이른 재판, 90이 넘은 고령의 원고 일곱 명이 예외 없이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광주는 어쩌면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들의 외로운 싸움을 처음에 시작했던 곳은 우리 정부도, 시민사회도 아닌 바로 '나고야 소송 지원회'였다.

지원회를 이끌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 회장이 근로 정신대 문제를 처음 접한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86년 경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사였던 그는 나고야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4년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광주·전남 150명의 소녀들이 강제 노역을 치른 사실을 알게 됐다. 징용 피해자들의 연령이 20대 전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13~15살 나이 어린 소녀들의 존재는 역사를 가르치는 그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연고도 없는 광주·전남 땅을 밟은 건 그때부터다. 피해자를 수소문하기 위해 수십 차례 광주를 방문했고, 그 결과 이 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장과 손을 잡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1988년 미쓰비시 공장에 지진 희생자 여섯 명의 추모비를 세운 그는 그 후 10여 년에 걸친 준비 끝에 1999년 드디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도록 주선했다.

무료 변론을 자처한 40여 명의 공동변호단, 그리고 변호단 곁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나고야 소송 지원회'가 있었다. 곤궁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이 10여 년에 이른 재판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지원회는 그때마다 할머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일체의 체류비를 지원했다.

냉랭한 일본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도 진력했다.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길거리에 뿌린 선전물과 소식지만도 수십 만장. 차차 시민들의 발길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 회원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재일동포가 많을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과 달리 99%는 순수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동참한 일본 시민들이다. 주부, 퇴직자, 교수, 자영업자, 교원 등 이들은 특별한 직책도 없이 매년 정기 회비를 내며 스스로 이 일에 떨쳐 나섰다.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 넘어간다. 그 사이 40대 팔팔하던 다카하시 마코도 회장도 어느 덧 백발이 되어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일본법에 호소하며 최고재판소까지 재판을 진행했지만 1965년 한일 협정을 이유로 모두 패소하자 2007년부터 그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여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쿄행 신간선 열차에 오른다. 나고야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는 360여㎞. 광주~서울이 300㎞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더 먼 거리다. 도쿄 한복판 시나가와 역과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금요 시위(일명 금요 행동)를 벌여온 것이 내년 1월이면 500회째를 맞게 된다.

필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올해 '나고야의 바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10년 넘게 기록한 그 촬영 원본도 상당히 많은 양이다. 80분 정도 되는 다큐 상영 시간이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활동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상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5·18 40주년에 맞춰 개봉을 위해 올 겨울 후반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90년 전인 1929년 일제의 불의에 맞서 결연히 일어났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 그동안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을 묵묵히 해 왔던 '나고야의 바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기 고

# 종교 개혁, 그때와 오늘의 한국 교회

양 홍
화평교회 원로목사

종교 개혁 502주년을 맞이한다. 원인과 근인이 있기는 하지만 약 반세기 동안 일어난 전 구라파 교회의 개혁 운동을 종교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마르틴 루터를 선두로 한 독일의 종교 개혁, 츠빙글리와 칼뱅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종교 개혁, 그리고 존 녹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16세기 종교 개혁을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루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날의 기록을 보면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 두 젊은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시의 교회 정문에 나타났다. 한 사람은 비텐베르크 대학 슈나이더 교수고, 또 한 사람은 루터 선생이었다. 그때 루터의 나이는 35세였다. 이 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 교회였고, 이 정문에 라틴어로 써진 서류를 꺼내 못을 박았다. 이 서류가 바로 95개조 논제였다.

16세기 종교 개혁의 중심 사상은 신앙의 권위를 제도적인 교회에서 성경으로 환원시킨 개혁이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개인 신앙 구원의 복음을 다시 찾는 개혁이며, 만인제사 즉 성직뿐 아니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성속 폐지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과업 성취는 루터의 교황청 탈출과 성서 번역, 칼뱅의 기독교 강요 등 기독교 교의 집대성, 녹스의 장로교 조직과 민주 정치 수립으로 볼 수 있다.

이 95개의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나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다.

교황청의 타락과 거짓, 미신과 사기를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감연히 일어선 것이 95개 조문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복 받고 병도 낫고 불로장수하고 자손창성한다는 복음이 아니고 죄인도 의롭다 하시며 세리, 창기, 고아, 과부, 강도, 그리고 살인자까지도 다만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용서의 복음, 신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다.

루터는 그때의 부패와 불의에 항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일어났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개신교)의 신앙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목숨 걸고 찾은 성경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지 아니한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 마음 속에 고갈돼 가고 병든 사회와 세계의 낙원으로 회복한 능력이 매장되어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자신으로 돌아가 끝없는 분열을 일삼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신 이 세계에서 불의와 악의 세력을 보고도 못 본 체 침묵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의를 위한 십자가가 싫어서 타계적 신앙이나 신비주의의 동굴, 십자가 없는 이론적 사회 윤리와의 염불에 합창하고 있다. 부패, 부정, 불의, 허위로 꽉 찬 이 사회에서 도덕, 경제, 정치,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참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의 한국 교회는 무슨 항거, 무슨 도전,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오늘 속죄부를 파는 텟젤은 없으나 복음을 함부로 파는 속죄부 판매인은 많다. 믿음은 세속적 행복을 얻는 속죄부, 만병을 고치는 생명수 속죄부, 환란에도 피난하여 죽지 않는 천년생 속죄부, 성령을 물상화하는 원시적 미신 속죄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속죄부, 회개 없는 구원의 속죄부,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의 속죄부를 대량 생산 판매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종교 개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겠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확신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산 사람이다.

정치가는 경륜으로, 상인은 이익으로, 학자는 지식으로, 군인은 무력으로 산다. 그러나 의인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이내믹한 종교 개혁은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전진이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또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고.

社 說

# 해경 헬기 그날 응급 학생 대신 간부 태웠다니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가 위급한 학생 대신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태웠다. 병원에 20분이면 갈 수 있는 헬기 대신 4시간 41분 걸리는 배를 타야 했던 학생은 끝내 생명을 잃고 말았다.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된 뒤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다.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던 A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40분께 3009함에 내린 헬기는 4분 뒤 A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또 다른 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결국 학생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 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스러운 일인가.

이제 세월호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주에는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도 열렸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대회에서 참사 발생 5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규탄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진실조차 알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늘 아래 고개를 쳐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라며 분개했다.

유가족 측 뜻을 함께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고발인만 4만 명에 육박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의 세월호 전면 재수사가 더욱 절실해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5·18 조사위 연내 출범 한국당 협조 절실하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던 진상조사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모두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 조사위원 가운데 세 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한국당은 지난 1월에야 추천을 완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 두 명이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재추천을 외면하다 군 출신을 염두에 두고 군 경력만 있어도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당이 조기에 위원을 추천한다면 올해 안에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루며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켜 왔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조사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한국당이 이번에도 5·18을 폄훼·왜곡한 전력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추천하면 또다시 논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5·18 40주년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포 명령,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당은 자격을 갖춘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 대중의 각성

대중이 '깨어남-각성(覺醒)'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 운영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사실을 대중이 깨닫기 위해선 '폭발력과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중이 각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선 기존에 사회를 유지해 왔던 힘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성공하면 '혁명'으로 칭송받는 이 에너지는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무산되면 '폭력·시위 사태' 정도로 폄훼되곤 한다. 그럼에도 일단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의 씨앗'이 대중의 뇌리에 심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비료 삼아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결국 혁명은 기정사실이 된다.

칠레에서 일어난 최근 시위 사태는 낡은 사회 시스템이 '대중의 각성'으로 어떻게 위기에 처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손꼽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위 1%의 부자들이 나라 전체 부(富)의 26.5%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다. 하위 50%의 국민이 겨우 2.1%의 부를 나눠 갖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유지해 온 것이다. 4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연금은 턱없이 적고, 의료비와 전기·수도 요금 등은 지나치게 비쌌다.

만성적인 불평등과 가난에 좌절하고 무뎌졌던 칠레 국민을 각성시킨 것은 바로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다. 학생이 주축이 된 대규모 시위대는 '칠레가 깨어났다'(Chile Desperto)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연금과 의료비 문제, 교육과 세제 등 사회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하철 요금 50원'이 칠레 국민을 각성시키고 사회적 에너지를 폭발시킨 뇌관이 된 셈이다.

칠레뿐만 아니라 우리도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대중의 각성과 촛불 혁명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대중의 각성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는 기득권 세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기존 정치권이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3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